

## 성인 여성과 여자 청소년의 사회적 배척 이후 처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 유 진

김 소 연†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사회적 배척 경험이 부정적 기분과 처벌 행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입증하고, 이러한 처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인 특성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을 성인 여성과 여자 청소년 집단으로 비교하여 발달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19세 이상의 초기 성인기 여성, 만 13-15세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망수용능력, 거부 민감성, 또래영향저항력 척도를 실시하였고, 사이버 볼(Cyber ball) 과제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소속 조건, 배척감을 느끼게 하는 배척 조건의 게임에 참여하게 하였다. 또한 독재자 게임으로 참가자가 소속/배척 조건의 팀원들에게 코인을 얼마나 불공평하게 분배하는지를 처벌 행동으로 보고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성인과 청소년 모두 배척 조건 이후 부정적 기분을 더 많이 보고하였고, 배척 조건의 상대방에게 더 많이 처벌하였다. 처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 성인 여성 집단은 기분이 더 나빠졌을수록, 혹은 또래영향저항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처벌을 한 반면, 여자 청소년 집단은 거부 민감성이 높을수록 더 많이 처벌하였다. 이는 사회적 배척 경험 뒤에 나타나는 부정적 기분과 처벌 행동에 연령 집단 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행동의 촉발요인은 발달적으로 달라진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즉, 성인 여성에게서는 또래영향저항력이, 여자 청소년에게서는 거부 민감성이 사회적 배척 경험 이후 나타나는 처벌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발견은 기분 변화나 심리적 고통과 같은 특정 시점의 상태와 달리 비교적 안정적인 개인 내적 특성이 배척 경험 이후 나타나는 처벌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사회적 배척, Cyber ball, 처벌 행동, 또래영향저항력, 거부 민감성

\* 본 연구는 덕성여자대학교 2016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본 논문은 제 1저자인 정유진의 석사학위 논문에 사용된 일부 자료를 포함하고 있음을 밝힘.

† 교신저자: 김소연,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01369)

E-mail: vicky47syk@duksung.ac.kr

사회적 배척은 인간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원시사회부터 인간에게 있어 집단에서의 배척이란 곧 죽음을 의미했으며, 현대 사회에 와서도 집단 내의 따돌림, 소외와 같은 사회적 배척은 여전히 개인에게 매우 위협적인 사건이다. 따라서 인간이 타인에게 수용되어 그들과 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려는 욕구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Bowlby(1973)와 Maslow(1968)는 안전 및 소속감의 욕구는 인간의 기초적인 결핍동기이며, 매우 원초적이고 강력하다고 하였다.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는 개인의 사고, 감정, 및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Abrams, Hogg, & Marques, 2005; Williams, 2001) 세상에 대한 이해와 통제, 신뢰, 및 자기-고양 등의 기본 동기를 유지하는 토대가 된다(Fiske, 2004). 반면에 소속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고 다양한 부적응 행동이 유발된다(Baumeister & Leary, 1995). 예를 들어 사회적 배척을 경험한 개인은 사회적 수용을 경험한 개인이나 통제조건의 개인보다 부정 기분(Buckley, Winkel, & Leary, 2004; Williams & Sommer, 1997), 스트레스 및 불안 수준(Williams, 2001), 신체적 고통과 연합된 뇌 영역의 활성화(Eisenberger & Lieberman, 2004) 등의 부정 정서를 증가시켰고, 높은 수준의 공격성(Buckley et al., 2004; Twenge, Baumeister, Tice, & Stucke, 2001; Warburton, Williams, & Cairns, 2006) 및 자기조절 실패(Baumeister, DeWall, Ciarocco, & Twenge, 2005; Twenge, Catanese, & Baumeister, 2002) 등의 부적 행동 양상을 나타나게 하였다.

사람들은 이 좌절된 소속 욕구를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다시 충족시키려고 시도하는데, 어떤 이들은 더욱 더 사회적으로 소속되고 인

정받을 수 있는 친사회적 행동을 선택하여 좌절된 소속욕구를 회복시키고 다시 수용되고자 한다(Maner, DeWall, Baumeister, & Schaller, 2007). 예를 들어 사람들은 사회적 배척을 당한 이후에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상황이 주어졌을 때 소속되기 위한 친화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Bernstein, Young, Brown, Sacco, & Claypool, 2008; Lakin, Chartrand, & Arkin, 2008). 반대로 사회적 배척이 친사회적 행동의 감소를 일으킨다는 사실도 보고되어 있다. 예를 들어 Twenge, Baumeister, DeWall, Ciarocco와 Bartels(2007)는 사회적 배척을 당한 사람들이 더 적은 액수의 돈을 기부한다거나, 도움을 더 적게 주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실험 상황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더 적게 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사회적 배척 경험 이후 다시 한번 상호작용을 하도록 했던 연구들에서 사람들은 이전에 자신을 소속시켜준 사람들과는 기꺼이 협력하려 했지만, 자신을 배척시킨 사람들에게는 친사회적 행동을 나타내지 않았으며(Hillebrandt, Sebastian, & Blakemore, 2011; Maner et al., 2007), 더 나아가 그들에게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다(Twenge et al., 2007). 이러한 행동은 배척된 이후에 상황에 대한 통제감의 회복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배척한 상대를 '처벌'하고 싶은 욕망을 반영한다(Moor et al., 2012).

이전의 연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배척시킨 인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처벌 행동을 측정하였다. 사람들은 맛있는 과자를 주거나(Chow, Tiedens, & Govan, 2008), 매운 소스를 많이 뿌리거나(Ayduk, Gyurak, & Luerssen, 2008), 혹은 코인을 적게 나눠주는 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었는데(Moor et al., 2012), 이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처벌 행동은 유의미하게 배척 인물에게 더 많이 선택되었다(Chow et al., 2008; Moor et al., 2012; Will, Crone, & Güroğlu, 2015).

이러한 사회적 배척에 대해 가장 민감한 집단은 청소년, 특히 여자 청소년 집단이다(Sebastian et al., 2011). 청소년기는 기본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타인이 부모에서 또래로 변하는 시기이며, 또래 관계는 청소년기 이전과 이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고 개인에게 미치는 과급력도 커지기 시작하는 시기이다(조윤주, 정옥분, 2009). 따라서 청소년에게 있어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동시에 또한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이나 성인 등의 다른 집단보다 더 사회적 거부에 민감하여, 더 기분이 나빠지고, 더 높은 불안 반응을 보이며(Crick, Grotpeter, & Bigbee, 2002), 사회적 배척에 대하여 부적 감정 조절이 더 많이 일어났다(Sebastian et al., 2011). 또한 남자 청소년보다 사회적 무시나 괴롭힘을 가하거나 당하는 일이 많아(Wang, Iannotti, & nansel, 2009), 사회적 고통에 더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성인기에는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여자 청소년과 성인 여성 사이에는 발달적인 차이가 나타나지만 남성에게서는 유의미한 발달적 관련성이 보이지 않았다(Guyer, McClure -Tone, Shiffrin, Pine, & Nelson, 2009). 하지만 사회적 배척 경험 이후의 처벌 행동을 측정한 연구들에서는 처벌 행동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Chow et al., 2008; Moor et al., 2012; Will et al., 2015), 처벌 행동에서의 연령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도(Moor et al., 2012) 19-21세 집단에서 약한 처벌을 선택하는 경향성을 보이긴 했

으나 전반적으로 10세에서 21세까지 모든 연령 집단에서 처벌 행동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즉 사회적 배척 경험 이후 자신을 배척시킨 상대방에게 처벌 행동을 선택하는 것은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배척 경험이 보편적으로 처벌 행동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배척에 대해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Chester et al., 2013). 어떤 사람들은 배척시킨 상대방을 '용서'하기도 한다. 즉, 처벌 행동을 '얼마나 선택하는가?'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어떤 개인적 요인이 이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가? 일반적으로 용서를 잘 하도록 돕는 특성은 개인의 심리적, 성격적 요인이나 공감 능력이라고 알려져 있던 하지만(박종호, 2013), 사회적 배척에 대한 처벌 행동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많지 않다. Will(2015)의 연구는 이러한 요인 중의 하나로 조망수용능력을 제시하였는데, 연구에 참가한 성인들은 조망수용능력이 높을수록 자신을 배척시킨 상대에게 처벌 행동을 덜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행동과 조망수용능력과의 관련성은 성인에게서만 밝혀졌고 청소년에게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또한 거부 민감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배척에 더 고통을 받는다는 연구는 보고되어 있으나(Sebastian et al., 2011) 거부 민감성과 처벌 행동의 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이처럼 배척으로 인해 느끼는 고통과 정서 조절, 어떤 사회적 행동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만, 개인이 사회적 행동 반응을 선택하게 되는 개인차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적 배척에 대하여 처벌 행

등을 선택하지 않는 것에 어떤 개인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주로 조사나 면접, 상담 등을 통해 사회적 배척을 유발하는 환경이나 배척자의 특성을 밝혀내는 연구들이 이루어졌고(김혜원, 이해경, 2000; 이춘재, 곽금주, 1999; 정선진, 이은혜, 고운주, 김영신, 2001; 한중철, 이민아, 이기학, 1999), 사회적 배척 및 수용 경험과 후속 행동 간의 인과관계, 더 나아가 이 후속 행동을 결정하는 개인 내적 요인에 대해서 탐색하려는 시도는 일부에 불과하다(조성숙, 최훈석,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척 경험이 이끌어내는 행동의 결과를 실험 연구를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사회적 배척 경험 이후에 자신을 배척시킨 또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배척에 대한 처벌 행동의 양상을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사회적 배척 경험 이후 그에 따른 후속 행동으로 나타나는 처벌 행동의 개인차는 어떠한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가를 밝히려 한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적 배척 경험 이후 부적 행동, 즉 처벌을 일으킬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입증하고, 이러한 처벌 행동을 더 많이 일으키는 개인의 특성을 밝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이러한 사회적 배척 이후의 처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들을 여성의 발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처벌 행동에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고(Chow et al., 2008; Moor et al., 2012; Will et al., 2015), 연령 집단 간 차이도 나타나지 않는(Moor et al., 2012) 보편적인 현상인 반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사회적 배척에 대한 정서 반응은 차이가 나타난다. 즉 처

벌 행동이 두 집단에서 똑같이 일어나더라도 처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인 특성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척 이후의 처벌 행동에 어떠한 개인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실험적으로 사회적 배척을 경험하도록 하고, 이후에 자신을 소속시켜준 사람들, 배척시킨 사람들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처벌 행동을 얼마나 하는지 측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 행동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 여성 집단과 청소년기 집단을 비교하여, 두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의 발달적인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매우 큰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배척 이후의 기분 상태를 측정하여 기분 상태가 더 나빠졌을수록 더 많이 처벌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처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한 조망수용능력은 청소년기 이후로도 발달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한 효과만 보고되었을 뿐,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척 후 나타나는 처벌 행동에 대한 조망 수용 능력의 영향을 성인 여성과 여자 청소년 간에서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선행 연구에서 사회적 고통과의 관련성만 밝혀진 거부 민감성이 이후의 처벌 행동 반응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여 조망수용능력 외에 그보다 더 처벌 행동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들이 있는지 밝혀내고자 하였다. 더불어 발달적으로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각각 다른 양상을 보

이는 포래영향저항력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배척으로 인한 처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발달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근거한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사회적 배척 이후의 처벌 행동은 두 연령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가설 2.** 성인 여성에서는 조망수용능력과 포래영향저항력이, 여자 청소년에서는 거부민감성이 사회적 배척 이후의 처벌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성인 여성 연구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이상의 성인 여성 44명(연령범위: 만 19-24세, 평균 연령 21.0세)을 대상으로 4일 동안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에게는 보상으로 심리학 수업의 실험 참여 점수를 제공하였다. 여자 청소년 연구는 경기도 소재 중학교의 부모 동의를 받은 재학생 만 13-15세 여아 40명(평균 연령 14.4세)을 대상으로 3일 동안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에게는 보상으로 문화상품권 5천원을 제공하였다. 실험에 무성의하게 참여하였거나 실험에 의혹을 제기한 참가자를 제외하였다(성인 5명, 청소년 11명 제외). 본 연구는 기관 내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 측정도구

### 사이버 볼(Cyber ball) 게임

참가자들에게 사회적 소속과 배척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William(2000)이 개발한 사이버 볼(Cyber ball) 게임을 사용하였다. 게임의 참가자는 온라인 속 가상의 팀원들과 함께 약 3분간 대략 30번의 공 던지기 게임을 하게 되는데, 소속 조건에서 참가자는 전체 공의 1/3를 받을 수 있고(총 10번), 배척 조건에서 참가자는 시행 초반에 두 번의 공을 받은 뒤 끝날 때까지 공을 받지 못한다. 배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모든 참가자들은 소속 조건을 먼저 시행 한 뒤, 배척 조건을 시행하였다 (Will, Cron., & Güroğlu, 2015).

### 독재자 게임(Dictator game)

독재자 게임이란 행동 경제학에서 참가자가 익명의 참가자와 짝지어져 주어진 자원을 분배하는 게임을 말하는데, 분배자는 독재자처럼 분배 비율을 마음대로 정하여 상대방에게 자원을 분배할 수 있고 반대로 수령자는 분배자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용하여 사회적 배척에 대한 후속 행동으로 일어나는 처벌 행동을 살펴보았다. 참가자는 앞서 사이버 볼 게임을 함께 했던 가상의 소속/배척 조건 팀원들에게 코인을 분배할 권한을 가지게 되고, 배척 조건 팀원들에게 불공정한 분배를 제안하는 정도를 처벌 행동으로 측정하였다. 각 시행마다 (5-5) 공평 조건과 (8-2), (5-4), (5-2), (4-2) 불공평 조건 중 하나가 나타나, 공평 조건과 불공평 조건 두 가지의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참가자들에게는 이 코인이 실험 참가비로 교환된다는 점, 팀원 세 명 중 무작위로 분배의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 수령자는 이 분배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점, 그리고 독재자 게임 이

후에 상호작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독재자 게임은 Presentation 18.1(Neurobehavioral system)을 사용하여 설계되었고, 실험용 laptop (Windows 7, Intel Core i5 4210M 2.6GHz, 15.6 인치)을 사용하여 실행되었다. 독재자 게임은 총 80시행으로, 소속/배척 조건 두 팀에게 4개의 분배 조건이 각 조건 당 10번씩 무작위 순서로 화면에 제시되었다(2팀×4개의조건×조건 당 10번). 게임은 한 팀에 약 4분씩, 연습 시행 5회를 포함해 총 약 10분 간 시행되었다. 선택 화면은 5초 동안 제시되고, 각 시행 사이의 대기 화면은 2초씩 나타났다. 소속 팀과 배척 팀의 분배 순서와 분배 조건이 나타나는 순서, 분배 조건의 위치는 역균형화 되어 각 참가자마다 다르게 나타나도록 설정하였다.

#### 기분 상태

배척 이후의 기분 상태가 이전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낮아지는지 측정하기 위해 Van Beest와 Williams(2006)가 사이버 볼 패러다임과 함께 사용한 기분 상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평정은 짝지어진 두 가지의 기분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5점 척도로 선택하게 하였다(항목: 좋았다/나빴다, 기뻐다/슬펐다, 편안했다/긴장됐다, 화나지 않았다/화가 났다). 총 점수의 범위는 4-20점이며 기분이 나쁠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 조망수용능력

조망수용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80)가 개발한 대인관계반응성 척도를 박성희(200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하위 요소 네 가지 중 조망수용 요소를 측정하는 7문항만을 사용하였다. Davis는 조망수용을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타인의 관점을 즉시적으

로 취할 수 있는 경향성으로 보고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로 평정하며, 총 점수의 범위는 7-35점이다.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조망수용능력이 높다. 문항의 예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의견을 가진 모든 사람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노력한다.', '모든 질문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믿고 두 측면 모두를 보려고 노력한다.' 등이 있다.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alpha$ 가 .78로 나타났다.

#### 거부 민감성

거부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에게는 Downey와 Feldman(1966)이 개발한 아동용 거부 민감성 척도를 박지윤, 정영숙(2008)이 국내 실정에 맞는 12개의 상황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측정은 먼저 응답자에게 12개의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불안, 분노, 우울의 정도와 거부당할 것에 대한 예측 정도를 6점 척도로 표시하게 하여 실시한다. 각 상황에서의 불안, 분노, 우울 정도와 거부 상황 예측 정도를 곱하여 전체 상황의 점수들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alpha$ 는 .88로 나타났다. 성인에게는 Downey와 Feldman(1966)이 개발한 성인용 거부 민감성 척도를 이복동(2000)이 번안,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성인 초기의 일상 생활에서 부모, 친구, 교수, 연인, 잠재적 연인, 잠재적 친구 등 중요한 타인에게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을 제시한다. 측정은 응답자에게 18개의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불안 정도와, 거부당할 것에 대한 예측 정도를 6점 척도로 표시하게 한다. 계산은 동일하게 각 상황에서의 불안 점수와 거부예상 점수를 곱

하여 전체 상황의 평균값을 구한다.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alpha$ 는 .87로 나타났다.

#### 또래영향저항력

Steinberg와 Monahan(2007)이 제작한 또래영향저항력 척도를 정옥분, 조윤주(2009)가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한다. 문항은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는 제시된 문장이 자신과 가깝다고 여겨지는 정도를 선택한다. 문항의 예는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 등이 있다. 평정은 4점 척도로 실시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4점, '정말 그렇다'는 1점), 또래영향저항력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alpha$ 는 .71로 나타났다.

#### 절차

성인 여성 연구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의 심리 연구실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실험에 참여하기 전에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자들은 시각적 심상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다른 대학교의 학생들과 팀을 이뤄 온라인으로 공 던지기 놀이를 하게 될 것이며, 그 다음 무작위로 팀원 중 한 명이 선택되어 연구 참가비로 교환되는 코인을 나눠줄 것이라는 설명을 듣는다. 이상의 설명에서 실제와 다른 점은, 시각적 심상화 능력을 측정하지 않는다는 점, 공 던지기 게임의 상대방은 가상의 존재라는 점, 모든 참가자가 코인 게임(독재자 게임)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동의서를 작성한 뒤 참가자는 조망 수용 능력, 거부 민감성, 또래영향저항력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설문 작성이 끝나면 실

험자는 참가자 앞에서 전화를 거는 시늉을 하여 타 대학교의 연구실에 게임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고, 참가자에게 접속이 완료되면 게임을 시작하라는 지시를 하여 사이버 볼 게임의 팀원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타 학교의 학생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참가자들은 먼저 사이버 볼 패러다임의 소속 조건 게임을 하고, 즉시 기분 상태를 측정하는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질문지를 작성한 뒤에는 다시 배척 조건 게임을 하고, 즉시 기분 상태를 측정하는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사이버 볼 게임을 마치면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코인 게임(독재자 게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이버 볼의 팀원들에게 코인을 분배하도록 하였다. 두 팀에 대한 독재자 게임을 모두 마친 뒤 실험 절차에 대한 해명을 실시하였고, 연구 참가비 대신 실험 참여 점수를 제공하였다.

여자 청소년 연구는 참가자가 다니고 있는 중학교의 상담 교실에서 진행되었다. 이후의 절차는 성인 연구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두 팀에 대한 독재자 게임을 모두 마친 뒤 실험 절차에 대한 해명을 실시하였고 연구 참가비로 문화 상품권 5천원을 지급하였다.

## 결 과

### 성인 여성

변인들의 측정치에 포함된 인원과 평균 및 표준 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처벌 수준은 배척 조건에게 준 불공평 분배에서 소속 조건에게 준 불공평 분배를 제거한 값이고 기분 변화 수준은 배척 조건 이후의 기분 상태에서 소속 조건 이후의 기분 상태를 제거한

표 1. 성인 측정 변인들의 참가자 수, 평균, 표준편차

성인	N	평균	표준편차
처벌 수준	39	8.87	8.633
기분변화 수준	39	4.21	3.147
조망수용능력	39	24.67	3.779
거부 민감성	39	6.74	1.956
또래영향 저항력	39	25.44	2.593

값이다.

독재자 게임의 분배 기회에서 처벌을 선택한 비율을 그림 1의 (a)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이는 40번의 분배 기회에서 공평 분배 (5:5) 대신 불공평 분배인 처벌을 선택한 비율을 나타낸다. 먼저 소속 조건과 배척 조건에 따라 선택하는 분배 조건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2(소속/배척 조건)×4(분배 조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속/배척 조건의 주효과( $F(1,38)=41.183, p<.01$ )가 나타났다. 즉, 참가자들은 소속 조건의 팀원보다 배척 조건의 팀원에게 더 처벌하였다. 분배 조건의 주효과( $F(1,59.336)=5.890, p<.01$ )도 나

타났다. 이에 대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더니 (8-2)와 (5-4) 분배 조건을 (5-2), (4-2) 분배 조건보다 유의미하게 많이 선택하였다. 소속/배척 조건과 분배 조건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배척 조건 게임이 참가자의 기분을 얼마나 나빠지게 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소속 조건 기분 상태와 배척 조건 기분 상태의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두 조건의 기분 상태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 $t(38)=-8.345, p<.01$ ). 즉, 참가자들은 소속 조건일 때보다 배척 조건일 때 더 부정적인 기분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나타냈다.

다음으로, 처벌 행동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처벌 수준은 기분 변화 수준, 즉 기분이 나빠진 정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고( $r(38)=.388, p<.05$ ), 또래영향저항력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r(38)=-.408, p<.01$ ). 반면 조망수용능력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r(38)=-.109, p>.05$ ), 거부 민감성과도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r(38)=.151, p>.05$ ). 이러한 또래영향저항력에 대한 결과를 그림 3(a)의 산포도로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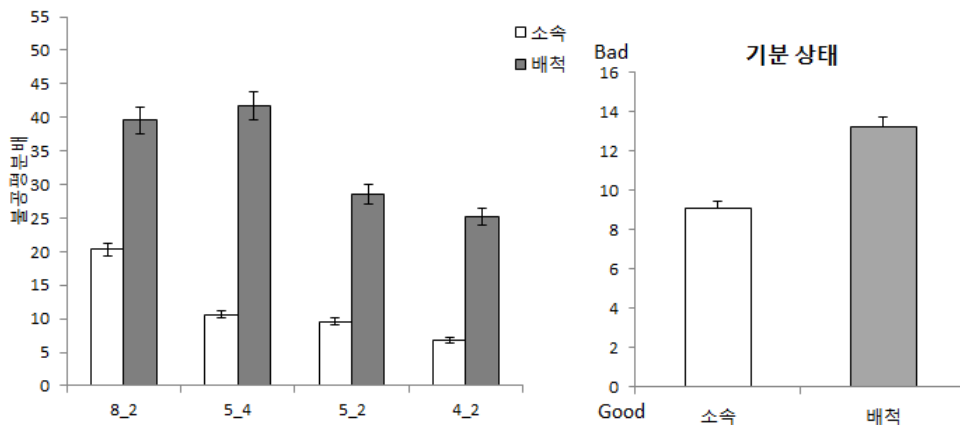


그림 1. 성인여성의 (a) 처벌행동 백분율(%)과 (b) 기분 상태



표 2. 성인 처벌 수준과 또래영향저항력 간 회귀 분석(N=39)

예측 변인	종속 변인	B	SE	$\beta$	t	p	r
또래영향 저항력	처벌 수준	-1.357	.500	-.408	-2.715	.010	-.408
$R^2 = .166, F(1,37) = 7.373, p = .010$							

표 3. 성인 처벌 수준과 또래영향저항력, 기분 변화 수준 간 회귀 분석(N=39)

예측 변인	종속 변인	B	SE	$\beta$	t	p	$r^2$
또래영향 저항력	처벌 수준	-1.129	.489	-.339	-2.310	.027	-.359
기분변화수준		.863	.403	.315	2.142	.039	.336
$R^2 = .260, F(2,36) = 6.339, p = .004$							

이에 대해, 기분 변화 수준, 또래영향저항력이 처벌 수준을 예측하는 데 있어 얼마나 설명력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3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또래영향저항력과 기분 변화 수준은 성인 여성의 처벌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 ( $R^2 = .260, F(2,36) = 6.339, p < .05$ )이며, 또래영향저항력은 기분 변화 수준 변인의 설명력을 제거한 단일 변인만으로도 처벌 수준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다( $\beta = -.359, p < .05$ ). 결론적으로, 또래영향저항력은 상태 특성인 기분 변화 수준의 영향 없이도 처벌 수준을 설명하는 개인의 안정적인 특성임을 발견할 수 있다.

#### 여자 청소년

변인들의 측정치에 포함된 인원과 평균 및 표준 편차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독재자 게임의 분배 기회에서 처벌을 선택한 비율을 그림 2의 (a)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소속 조건과 배척 조건에 따라 선택하는 분배 조건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2(소속/

배척 조건)×4(분배 조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속/배척 조건의 주효과 [ $F(1,28) = 22.063, p < .01$ ]가 나타났다. 즉, 참가자들은 소속 조건의 팀원보다 배척 조건의 팀원에게 더 처벌하였다. 분배 조건의 주효과, 소속/배척 조건과 분배 조건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배척 조건 게임이 참가자의 기분을 얼마나 나빠지게 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소속 조건 기분 상태와 배척 조건 기분 상태의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두 조건의 기분 상태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 $t(28) = -8.503, p < .01$ ]. 즉, 참가자들은 소속

표 4. 청소년 측정 변인들의 참가자 수, 평균, 표준 편차

청소년	N	평균	표준편차
처벌 수준	29	9.10	10.359
기분변화 수준	21	5.52	2.977
조망수용능력	29	24.41	2.885
거부 민감성	29	18.66	7.733
또래영향 저항력	29	25.24	2.6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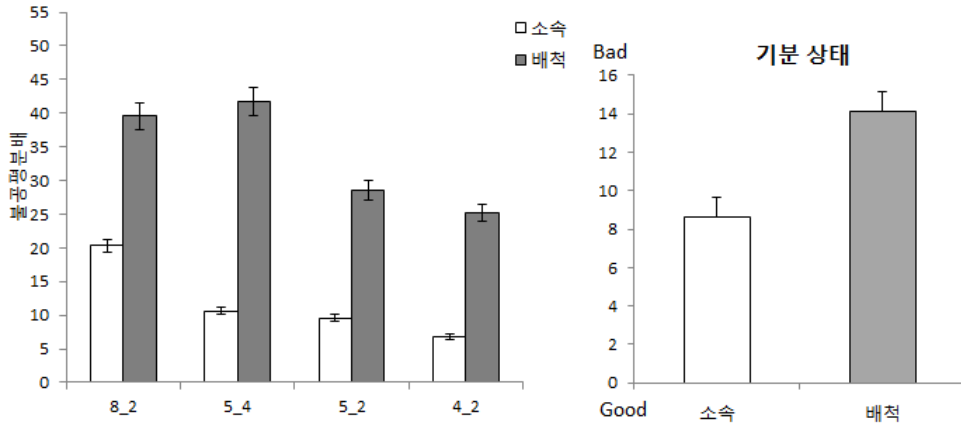


그림 2. 여자 청소년의 (a) 처벌 행동 백분율과 (b) 기분 상태

조건일 때보다 배척 조건일 때 더 기분이 나빠졌다.

이러한 처벌 행동을 얼마나 선택했는가에 어떤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처벌 수준은 거부 민감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r(28)=.427, p<.05$ ). 반면 조망수용능력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r(28)=-.267, p>.05$ ), 또래영향저항력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r(28)=-.116, p>.05$ ). 이러한

거부 민감성에 대한 결과를 그림 3(b)의 산포도로 나타내었다. 이에 대해, 거부 민감성이 처벌 수준을 예측하는 데 있어 얼마나 설명력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 6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거부 민감성은 단일 변인으로도 여자 청소년의 처벌 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인임을 알 수 있으며( $R^2=.182, F(1,27)=6.009, p<.05$ ), 기분 변화 수준을 예측 변인으로 포함시켰을 때도 기분 변화 수준과는 상관없이 처벌 수준

표 5. 청소년 처벌 수준과 거부 민감성 간 회귀 분석(N=29)

예측 변인	종속 변인	B	SE	$\beta$	t	p	r
거부 민감성	처벌 수준	.572	.233	.427	2.451	.021	.427

$R^2 = .182, F(1,27)=6.009, p=.021$

표 6. 청소년 처벌 수준과 거부 민감성, 기분 변화 수준 간 회귀 분석(N=21)

예측 변인	종속 변인	B	SE	$\beta$	t	p	$r^2$
거부 민감성	처벌 수준	.541	.225	.454	2.402	.027	.447
기분변화수준		1.142	.638	.339	1.791	.090	.333

$R^2 = .377, F(2,18)=5.449, p=.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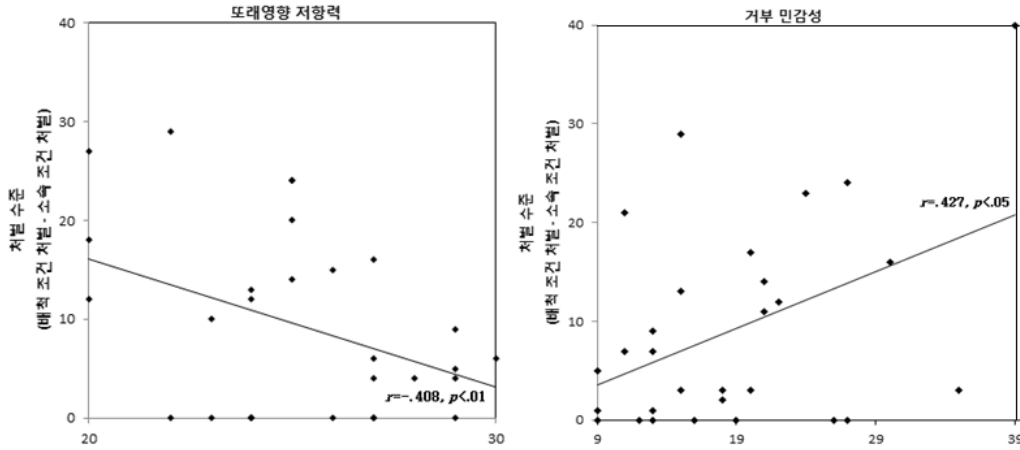


그림 3. (a) 성인 또래 영향 저항력 산포도와 (b) 청소년 거부 민감성 산포도

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개인 내적인 변인이다( $p=.447, p<.05$ ). 없었다.

### 집단 간 비교

처벌 수준이 연령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지 살펴보기 위하여 2(소속/배척 조건)×2(성인/청소년)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속/배척 조건의 주효과( $F(1,66)=60.765, p<.01$ )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두 집단의 참가자들은 모두 배척 조건의 팀원에게 더 처벌하였지만 처벌한 정도에는 연령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기분 변화 수준이 연령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지 살펴보기 위하여 2(소속/배척 조건)×2(성인/청소년)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더니, 소속/배척 조건의 주효과( $F(1,58)=135.362, p<.01$ )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두 집단의 참가자들은 모두 배척 조건에서 더 기분이 나빠졌지만, 나빠진 정도에는 연령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처벌 수준과 기분 변화 수준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 논 의

본 연구는 사회적 배척을 경험한 뒤의 후속 처벌 행동 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처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 이 요인들이 성인 여성과 여자 청소년 집단 사이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이버 볼을 통해 실험적으로 사회적 배척을 경험하도록 하였고, 독재자 게임을 통해 후속 행동 반응으로 처벌 수준을 측정하였다. 또한 처벌 수준의 개인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여섯 가지 요인들을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배척 경험 이후 참여자의 기분은 더 나빠지고, 자신을 배척시킨 상대에게 더 많이 처벌한다. 본 연구는 이전의 해외 연구들(Moor et al., 2012; Will et al., 2015)에서 나타났던 사회적 배척 경험 이후에 나타나는

기분 변화와 처벌 행동의 경향을 재확인하고자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배척 경험 이후의 기분 변화와 처벌 행동은 연령 집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즉, 성인 여성과 여자 청소년은 연령과 상관없이 모두 배척 이후 기분이 더 나빠지고, 배척 조건에 더 처벌하는 경향성을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났던 것과 일치한다(Moor et al., 2012; Will et al., 2015).

셋째, 성인 여성 집단의 처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분 변화 수준과 또래영향저항력이었으며, 처벌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은 또래영향저항력이었다. 또래영향저항력은 상대적 특성인 기분 변화 수준을 배제하고도 단일 요인만으로도 설명력이 있는 안정적인 개인 내적 특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영향저항력이 성인기까지 발달하는 요인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즉 청소년기의 또래영향저항력은 아직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불안정한 특성인 반면, 성인기는 또래영향저항력이 안정적으로 발달한 시기이며(Steinberg & Monahan, 2007), 또래의 영향력 자체가 발달적으로 작아지는 시기에 도달했기 때문에(Moffit, 1993) 또래영향저항력이 처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여자 청소년 집단의 처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부 민감성이 유일하였다. 상대적 특성인 기분 변화 수준은 여자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거부 민감성은 단일 요인만으로도 설명력이 있는 안정적인 개인 내적 특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Sebastian et al., 2011)에서 나타났던 거부에 민감한 여자 청소년 집단이 사회적 배

척에 대해 심리적 고통을 더 느낀다는 사실에서 더 나아가, 거부 민감성이 여자 청소년의 심리적 고통 뿐 아니라 이후의 처벌 행동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배척에 대한 기분 변화와 처벌 행동은 연령 집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밝혀진 요인들 중 개인 내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요인은 성인 여성에게서 또래영향저항력, 여자 청소년에게서 거부 민감성이었다. 이러한 특성에 대한 발견은 기분 변화나 심리적 고통과 같은 특정한 시간의 상태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과 달리 비교적 안정적인 개인 내적 특성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거부 민감성과 또래영향저항력의 발달적인 관계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Sebastian과 동료들(2011)의 연구는 청소년에게서만 또래영향저항력이 낮을수록 사회적 거부를 느끼는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보고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역시 또래영향저항력과 거부 민감성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관계에 대하여 Sebastian과 동료들(2011)은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할 때 타인의 평가를 참조하는 경향성이 높아 거부 민감성이 높은 반면, 이러한 청소년의 특성이 또래영향저항력이 발달함과 함께 차츰 감소하는 발달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추측하였다.

본 연구가 선행 연구(Will et al., 2015)에서와 같은 패러다임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와 달리 조망수용능력은 성인과 청소년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결과의

원인을 몇 가지 짚어보면, 먼저 조망수용능력을 자기보고로 측정한 점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처벌 행동과 자기보고로 측정한 조망수용능력의 부적 상관을 보고한 Will(2015)의 연구는 처벌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신을 배척시킨 사람에 대한 보복 욕구가 적고 상대방의 웰빙에 대한 염려를 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러나 처벌 행동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인지적이고 동기적인 관점에서 따로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행동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조망수용능력으로 상대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한 가지 제안은 이러한 자기보고로 측정한 조망수용능력이 인지적 관점에서의 공감 능력을 표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타적 행동이나 친화적 행동에는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이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로 미루어 보아(Oswald, 1996; 박지숙, 박영신, 2013),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이 처벌 행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권주현과 박영신(2013)은 마음에 대한 이해보다 공감이 친사회적 행동과 더 깊은 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조망수용능력이 높은 경우 상대의 사회적 배척을 악의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고 처벌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하여 고려했을 때, 또래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나 방관자가 피해자보다 마음읽기를 더 잘 한다는 연구들을 근거로 보았을 때(김혜리, 이진혜, 2006), 상대의 마음이나 관점을 파악하는 것이 항상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집단에서 탈락한 인원이 많아져 두 연령 집단 간의 참가 인원이 차이가 커지게 되었다

는 점, 둘째, 데이터 수집 과정의 오류로 청소년 집단의 기분 변화 수준 측정에 포함된 인원이 21명으로 감소했다는 점 등은 제한점으로 남았다. 셋째, 성인과 청소년에게 각각 다른 거부 민감성 척도를 사용했다는 점을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거부 민감성은 연령에 따라 아동용과 성인용으로 구분되어 있어 성인에게 성인용, 청소년에게 아동용 거부 민감성 척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아동용 거부 민감성 척도가 국내 실정에 맞게 타당화 작업이 미진한 상태이므로 아동용 척도가 더 정교하게 거부 민감성을 측정해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Cyber ball 패러다임을 통해 사회적 배척을 실험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이에 따른 처벌 행동의 발달 양상을 실험적으로 입증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처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인 요인을 새롭게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영향 요인이 연령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처음으로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 남녀 집단 간의 비교, 정서적 조망수용능력 측정을 통한 처벌 행동과 조망수용능력과의 관계 검증, 또한 과제 수행을 통해 직접적인 조망수용능력을 측정하여 처벌 행동과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연구 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권주현, 박영신 (2013). 마음의 이해와 공감이

- 독재자 게임에 나타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3), 117-135.
- 김혜리, 이진혜 (2006). 마음읽기 능력과 괴롭힘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2), 1-19.
- 김혜원, 이해경 (2000).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45-64.
- 박성희 (2004). **공감학: 어제와 오늘**. 학지사.
- 박종효 (2003). 용서와 건강의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301-321.
- 박지숙, 박영신 (2013). 독재자 게임으로 살펴본 아동의 이타적 행동의 발달, 성차와 조망수용의 역할.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6(1), 167-186
- 박지윤, 정영숙 (2008). 아동의 거절상황 구성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2), 15-37.
- 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2000). 학령기 아동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가 거부민감성 및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1), 51-59.
- 이복동 (2000). **성인애착과 이성 관계 만족: 거부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춘재, 광금주 (1999).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실태, 특성 및 대책**. 서울: 집문당.
- 정선진, 이은혜, 고윤주, 김영신 (2001).
- 조성숙, 최훈석 (2007). 사회적 배척/수용 경험 및 귀인이 사회적 정보처리와 처벌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1), 131-151.
- 조윤주, 정옥분 (2009). 청소년의 동조적 또래 괴롭힘에 대한 매개된 조절모형 검증. **인간발달연구**, 16(3), 91-111
- 한종철, 이민아, 이기학 (1999). 상담과 심리치료: 초등학교의 집단 괴롭힘 개입 유형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자아존중감, 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1), 95-108.
- Abrams, D., Hogg, M. A., & Marques, J. M. (2005). A social psycholog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social inclusion and exclusion. In D. Abrams, M. A. Hogg, & J. M. Marques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clusion and exclusion*. New York: Psychology Press.
- Ayduk, Ö., Gyurak, A., & Luerssen, A. (2008).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rejection-aggression link in the hot sauce paradigm: The case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3), 775-782.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 Baumeister, R. F., Dwell, C. N., Ciarocco, N. J., & Twenge, J. M. (2005). Social exclusion impairs self-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4), 589-604.
- Bernstein, M. J., Young, S. G., Brown, C. M., Sacco, D. F., & Claypool, H. M. (2008). Adaptive responses to social exclusion: Social rejection improves detection of real and fake smiles. *Psychological Science*, 19(10), 981-983.
- Bowlby, J. (1973).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Vol. 2). *Attachment and loss*.
- Buckley, K. E., Winkel, R. E., & Leary, M. R.

- (2004). Reactions to acceptance and rejection: Effects of level and sequence of relational evalu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1), 14-28.
- Chester, D. S., Eisenberger, N. I., Pond, R. S., Jr, Richman, S. B., Bushman, B. J., DeWall, C. N. (2014). The interactive effect of social pain and executive functioning on aggression: an fMRI experiment.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9*(5), 699-704.
- Chow, R. M., Tiedens, L. Z., & Govan, C. L. (2008). Excluded emotions: The role of anger in antisocial responses to ostracism.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3), 896-903.
- Crick, N. R., Grotpeter, J. K., & Bigbee, M. A. (2002). Relationally and physically aggressive children's intent attributions and feelings of distress for relational and instrumental peer provocations. *Child development, 73*(4), 1134-1142.
- Downey, G., & Feldman, S. (1996). The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 Eisenberger, N. I., & Lieberman, M. D. (2004). Why rejection hurts: a common neural alarm system for physical and social pai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8*(7), 294-300.
- Fiske, S. T. (2004). *Social beings: A core motives approach to social psychology*. Hoboken, NJ: Wiley.
- Guyer, A. E., McClure Tone, E. B., Shiffrin, N. D., Pine, D. S., & Nelson, E. E. (2009). Probing the neural correlates of anticipated peer evalu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80*(4), 1000-1015.
- Hillebrandt, H., Sebastian, C., & Blakemore, S. J. (2011). Experimentally induced social inclusion influences behavior on trust games. *Cognitive Neuroscience, 2*(1), 27-33.
- Lakin, J. L., Chartrand, T. L., & Arkin, R. M. (2008). I am too just like you nonconscious mimicry as an automatic behavioral response to social exclusion. *Psychological science, 19*(8), 816-822.
- Maner, J. K., DeWall, C. N., Baumeister, R. F., & Schaller, M. (2007). Does social exclusion motivate interpersonal reconnection? Resolving the "porcupine probl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1), 42-55.
- Maslow, A. H. (1968).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NewYork: Van Nostrand.
- Moffi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4), 674-701.
- Moor, B. G., Güroğlu, B., de Macks, Z. A. O., Rombouts, S. A., Van der Molen, M. W., & Crone, E. A. (2012). Social exclusion and punishment of excluders: neural correlates and developmental trajectories. *Neuroimage, 59*(1), 708-717.
- Oswald, P. A. (1996). The effects of cognitive and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on empathic concern and altruistic helping.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6*(5), 613-623.
- Sebastian, C. L., Tan, G. C., Roiser, J. P., Viding, E., Dumontheil, I., & Blakemore, S. J. (2011). Developmental influences on the neural bases of responses to social rejection:

- implications of social neuroscience for education. *Neuroimage*, 57(3), 686-694.
- Steinberg, L., & Monahan, K. C. (2007). Age differences in resistance to peer influ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3(6), 1531-1543.
- Twenge, J. M., Baumeister, R. F., Tice, D. M., & Stucke, T. S. (2001). If you can't join them, beat them: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6), 1058-1069.
- Twenge, J. M., Catanese, K. R., & Baumeister, R. F. (2002). Social exclusion causes self-defea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3), 606-615.
- Twenge, J. M., Baumeister, R. F., DeWall, C. N., Ciarocco, N. J., & Bartels, J. M. (2007). Social exclusion decreases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1), 56-66.
- Underwood, B., & Moore, B. (1982). Perspective-taking and altruism. *Psychological bulletin*, 91(1), 143-173.
- Van Beest, I., & Williams, K. D. (2006). When inclusion costs and ostracism pays, ostracism still hur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5), 918-928.
- Warburton, W. A., Williams, K. D., & Cairns, D. R. (2006). When ostracism leads to aggress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control depriv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2), 213-220.
- Wang, J., Iannotti, R. J., & Nansel, T. R. (2009). School bullying among adolescents in the United States: Physical, verbal, relational, and cyber.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5(4), 368-375.
- Will, G. J., Crone, E. A., van den Bos, W., & Güroğlu, B. (2013). Acting on observed social exclusion: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punishment of excluders and compensation of victims. *Developmental psychology*, 49(12), 2236-2244.
- Will, G. J., Crone, E. A., & Güroğlu, B. (2015). Acting on social exclusion: neural correlates of punishment and forgiveness of excluders.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10(2), 209-218.
- Williams, K. D., & Sommer, K. L. (1997). Social ostracism by coworkers: Does rejection lead to loafing or compens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7), 693-706.
- Williams, K. D., Cheung, C. K., & Choi, W. (2000). Cyberostracism: effects of being ignored over the Interne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48.
- Williams, K. D. (2002). *Ostracism: The power of silence*. Guilford Press.
- Williams, K. D., & Jarvis, B. (2006). Cyberball: A program for use in research on interpersonal ostracism and acceptance. *Behavior research methods*, 38(1), 174-180.

1차원고접수 : 2017. 01. 15.

수정원고접수 : 2017. 02. 20.

최종게재결정 : 2017. 02. 24.



## Exploring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ing the punishment after social exclusion in female adults and adolescents

Yu-Jin Jeong

So-Yeon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Duksung Women's University

We investigated critical factor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explaining punishment behavior after experiencing social exclusion. Our findings suggest that experiencing social exclusion can influence one's behavior and mood; such experience causes the excluded person to develop a negative attitude and take actions intended to punish the excluding parties. Female adults (19 - 24 years old) and female adolescents (13-15 years old) participated in this study. Participants completed written questionnaires with scales designed to measure their perspective taking, rejection sensitivity, and resistance to peer influence. Each participant subsequently experienced both social inclusion and exclusion while participating in the Cyber ball task developed by Williams (2000). After the Cyber ball task, participants played a Dictator Game in which they divided coins between themselves and players who had previously either included or excluded them during the Cyber ball task. Punishment behavior was measured by the participants' unfairness in distributing coins to the other party. The results revealed that participants in both age groups selectively punished people who had excluded them in the Cyber ball task. In the adult group, this tendency towards punishment was associated with resistance to peer influence and the level of mood change. However, the tendency was associated with rejection sensitivity in the adolescent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although both age groups exhibited negative attitudes and punishment tendencies to excluders after social exclusion, the triggering factors of the punishment were different between the two age group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both the resistance to peer influence and rejection sensitivity found in each age group were related to inherent characteristics, and not due to changes in mood or social distress.

*Key words* : social exclusion, Cyber ball, punishment, resistance to peer influence, rejection sensitivity